



대학 교육과정 : 본연을 찾기 위한 제언

손 중 기 | 원광대 교무처장

I. 서론

좀 과장하여 표현하면 한 세대는 그 세대가 이수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특징지워진다. 세대차란 각 세대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교육과정의 차이인 셈이다. 전통적이고 주지주의적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세대는 권위적이고 집단적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실용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세대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려고 하며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인간을 형성하고 사회 문화를 결정하며 역사를 생성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나타내 보이는 명암도 실은 학교 교육과정의 과보이다. 흔히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거니와 이 말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여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백년이 좌우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힘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은 많은 변화와 개선, 개정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대학 자율로, 강제된 교육과정으로부터 학생 선택권 확보의 강화로,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으로부터 구성원의 합의 도출로, 폐쇄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

로부터 개방적인 체제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부터 교과·경험·학문·인간·사회 통합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발전이라면 큰 발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발전은 대학 구성원, 특히 교수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한국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발전은 외부 환경과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세계사적 조류라는 외부 힘에 떠밀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학이 사회 문화를 창조하는 힘은 여전히 미흡하며, 아직도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성격 정립 노력의 부족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민감성과 책무성의 부족으로 내용이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먼저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진정 대학다운가?"라는 다소간 엉뚱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 질문에의 대답은 "대학이 대학다운가, 아니면 대학답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준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초점이 대학 교육과정이므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는 준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대학답지 못하다"라는 것이다. 한국에 200여 개에 달하는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이 교수와 직원,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부모나 사회인들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

“

대학은 간판이나 액자 속의 교훈 혹은 교육목적 진술문에 의하여
무슨 대학이고 어떤 대학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성격은 교수들의 수업 부담이나 연구 실적 평가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

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의 모범적인(확일적인) 모습
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대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긍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세상이 급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중심 주제를 대
학은 가져야 한다. 수요자중심 교육이니 교육의 경
쟁력 강화가 대세요,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
다고 해도 흔히 갖든 교육, 정신과 태도와 안목을
세련시키고 도야하는 교육의 중심축까지를 놓아 버
려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무장된 창의적인 인간
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취업 준비로 기판화
된 대학, 지엽적인 일회성 혹은 단기성 특성화 프로
그램으로 평가받고 지원비나 타내는 교육체제, 균
형과 조화보다는 교수 개인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편중된 교육과정 편성, 학기초와 학기말을 비
롯해 이리저리 잘라 내어 12주를 제대로 채우지 못
하는 수업량,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교수들이 낡은 교육과정, 낡은 교과목, 낡은
강의를, 낡은 수업 방법을 고집한다면 건전한 미래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대학 교육과정 문
제의 핵심이요,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다고 판단하
는 이유의 몇 가지이다.

대학 교육과정의 현상을 기술하고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한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일이다. 우리나라

도 대학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학부와
대학원과의 관계, 다양한 학제와의 관련성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교육과정도 편성과 운영이라는 두 측
면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학부 교육과정의
편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교육과정의 성격을 규
명하고,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의미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해석·적용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넓게 생각하느냐, 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
가 달라질 수 있고, 교육에 어떤 전제를 상정하며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도 있
다. 또 누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준거와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지게 되
며, 학교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
적용되기도 한다.

말이 달리는 경기 코스 혹은 경마 트랙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currere*가 *curriculum*이라는 용어로
전용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요했으며, 이적도
이 분야의 학자들조차 대체적으로나마 합의한 개념
정의를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대학에서 총장
은 총장 나름으로, 교수들은 그 나름의 교육과정 개

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생들과 직원들 또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인격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익힐 내용과 경험의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대체적인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체육대회나 집단 여행, 혹은 축제가 교육과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엇갈린다. 어떤 교수는 교과목들의 편제로, 어떤 교수는 교과목 편성과 학점이수체제로, 또 어떤 교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교육활동의 조직이나 구상으로 교육과정을 규정한다. 그러면 대학 교육과정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1. 대학 교육과정은 교육의 종합 구상이다

대학 교육과정은 그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 및 수단들의 체계적인 조직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핵심적 요소는 교육목적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과정, 교육평가, 그리고 이들 요소가 타당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을 활성화시키는 환경 조적 등으로 보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교육목적 달성의 수단이라고 보면, 교육과정은 한 학교교육의 종합 구상이 된다. 교육목적의 달성이란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년, 학기별로 배정하고 각 교과목의 비중을 고려하여 학점을 배분하는 등의 교과목 편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고와 일은 비교적 쉬워진다. 그러나 그것들의 편성은 동시에 교과 담당 교수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과외 성격에 적합한 수업방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교과별 환경 구성이 결정되는 매우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사고를 요한다. 심지어 교육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편성한 교과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시각의 통합성과 개방성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교과외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교과외 과정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 프로그램들을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2. 대학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대학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대학은 한 국가의 공적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 편성의 보편성을 지남과 동시에 대학은 나름대로 건학이념과 특수한 교육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정체성을 지녀야 하며 응당 타 대학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간판이나 액자 속의 교훈 혹은 교육목적 진술문에 의하여 무슨 대학이고 어떤 대학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중심이니, 교육중심이니, 취업중심이니 하는 대학의 성격은 교수들의 수업 부담이나 연구 실적 평가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대학과 전문대학, 농과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간의 차이는 대학의 명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대학들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모습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농과대학이라는 명칭이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에게 매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기존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은 그대로인 채 생명자원과학 대학으로 바꿨다면 이것은 가식이고, 위선이다.

3.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 대학의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대학교육은 학생을 선발하고, 교수를 충원하고,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재정을 마련하고, 교육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을 교육시켜 사회로 진출시킨다. 이와 같은 일체의 대학 운영 요소들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다름 아닌 교육과정이다. 자칫 대학의 여건과 조건에 교육과정을 끼워맞추는 경향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으나, 이는 대학 운영의 순서를 망각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커다란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애초에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충당하는 과정을 대학 경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을 밝히는 일과 더불어 편성되는 것이며, 다른 여타의 경영 요소는 교육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4. 대학 교육과정은 구성원의 협의와 당해 대학의 상황 분석에 기초하여 편성 운영된다

대학 교육과정은 교수와 학생의 공동 협의와 교수·학습 환경 조건의 결합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지침이나 통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철저히 학교 교육과정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당시 교육부가 교양필수 과목을 지정하거나 교양과정 이수학점을 일정 비율로 정해 모든 대학을 획일화시켰으나, 현재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전공이수학점의 하한선 외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과정은 철저히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는 특징을 갖는다. 모든 대학은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적 욕구가 다르고, 지역적 특성이 다르며,

교수들의 학문적 취향이 다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보장된 이상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편성 운영되는 성격을 갖는다.

5. 대학 교육과정은 국가의 미래상과 미래의 사회 문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간됨과 인간의 상을 형성해 나간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사회의 변화, 학생들의 필요, 학문 발전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되고 창의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인력이 배출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전통적인 교과들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낡은 지식이나 습득시키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법을 외면하는 한 모방과 답습과 안주하는 인간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Ⅲ.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

1. 교육과정 시각의 협소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교육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교육체제의 모든 요소들이 동심원적으로 연결되어 교육활동이 전개된다. 어떤 자질을 지닌 교수를 선발할 것인가, 어느 분야의 학생 모집을 축소할 것인가,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부서를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어느 부문에 재정 투입을 축소할 것인가 등 모든 교육조직의 의사결정은 대학의 교

육과정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대학의 구성원들, 심지어 교수들조차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편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교육과정 개편은 기존 교과목들 중에서 몇 과목을 제외시키고 몇 개 과목을 추가하는 것, 혹은 교과목의 이수 학년이나 학기를 바꾸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교수가 바뀌는 일이며, 교수·학습 내용이 바뀌는 일이며, 수업 방식이 바뀌는 일이며, 시설과 설비가 바뀌는 일이며, 평가방식이 바뀌는 일이며, 교육과정 운영 지원체제가 바뀌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다.

2. 교육과정 정체성 혼미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에 따라서 그 대학의 정체성이 드러남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학 교육과정의 정체성이란 그 대학교육의 특성, 혹은 타 대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해당 대학교육의 고유성이다. 대학교육은 각 대학의 공통적인 부분을 갖음과 동시에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어느 편인가 하면 특수성은 없고 공통성만 존재한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이 비슷한 가운데 소수의 교과목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대학 수는 많으나 교육과정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A 대학 인문학부의 교육과정은 B 대학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의 각 대학에 학과나 학부가 무수하게 개설되어 있다. 이들 학과나 학부들은 최소한의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지닐 것이 요구되면서 동시에 모두가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교육 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3. 대학 설립이념, 교육목표체계와의 비일관성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대학 교육과정은 대학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대학 설립이념이나 교육목적은 대학을 설립할 당시 어떤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합의된 공약이다. 이와 같은 공약은 비교적 함축적인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대학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다른 이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과정은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단과대학 교육목적과 목표, 학부 혹은 학과 교육목적과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이 일관성을 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제 도입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기초 연구 부재 혹은 부실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교직원과 학생들의 요구사정,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관한 상황 분석, 조직적인 위원회 활동, 공청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일임과 동시에, 교육목적의 분석에서부터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그리고 대학 교육과정은 교수와 학생의 공동 협의와 교수·학습 환경 조건의 결합, 그리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기초 연구에 바탕하여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 일은 많은 연구비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며 가능

“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고등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타 대학이 하는 교육을 우리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한 상황이다.

교육목적도 같아야 하며, 교육과정 편성도 동일해야 하고,

교육 내용과 수업 방법도 비슷하고,

교육 평가 방식도 같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하다면 실험적인 운영 과정을 요한다.

그러나 흔히 교육과정 편성 혹은 개정이라고 하면 교과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일, 혹은 교과목 이수 학년·학기의 조정 정도로 생각하고 학부(과) 교수들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대학교육 개혁 방향과의 괴리

오늘날 대학교육 개혁의 핵심은 수요자중심 교육과 교육의 국가 경쟁력 강화이며, 학부제와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이러한 대학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학사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찬성과 반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대학의 학사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존 교육과정이 제도에 걸맞게 바뀐다는 것이 대전제이다. 예컨대 원론적인 의미에서 학부제는 그간 난립한 학과들로 인하여 동일 단과대학 안에서도 유사한 교과가 중복 개설되고, 학과의 교육과정이 폐쇄적으로 편성 운영됨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는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다양화의 세기적 변화에 대응하는 힘이 약화된다는 점, 그리고 관련 학과간에 교수 배치나 시설과 설비의 중복 투자로부터의 인적·물적 낭비 초래로 인한 경쟁력 약화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 실은 정부에 의하여 학부제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 교육과정은 학부제의 기본 성격과는 판이하게, 심지어는 기존 학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합쳐 놓거나 끌고 가는 것이 되고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 학부제 도입은 도입의 순간부터 실패한 것이다.

IV. 한국 대학 교육과정의 갈 길

1. 대학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고등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타 대학이 하는 교육을 우리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한 상황이다. 교육목적도 같아야 하며, 교육과정 편성도 동일해야 하고, 교육내용과 수업 방법도 비슷하고, 교육평가 방식도 같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대학이 교양 과정에 ‘국민윤리’나 ‘체육’을 없앴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없앨 필요는 없다. 각 대학은 당해 대학이 할 수 있는 교육, 그 대학의 특징 있는 교육을 담당하면 된다. 그것은 대학을 설립할 당시의 교육이념과 대학의 교육목적 체계를 밝혀 놓은 것이 있으므로 — 실은 대학들의 교육목적이나 교육목표가 비슷비슷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거기에 합당하면서 타당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대학들의 교육과정 편성 모습과 운영 방법이 달라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타 대학이나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집·분석하여 참고하거나 거기에서 교육과정 편성상의 통찰력을 얻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모방하거나 답습할 필요는 없다. 대학의 문을 연 정신이 다르고, 학생이 다르고, 교수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만큼 교육과정은 달라야 하는 것이다. 국가나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중심이 되어 각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별 특성과 다양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몇 가지 평가준거로 대학들을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기초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교육과정

대학교육에서 기초교육이란 탐구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요, 철학이 있는 인간 육성 교육이다. 대학에서 편성 운영되는 일체의 교과는 '인간'이 중핵적인 내용이다. 어떤 교과든지 인간성과 관련 없는 것은 없다. 최근에 들어와 각 대학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수과정을 없애고 선택과정화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 교과이수의 학년간 벽을 허물고 부전공, 복수전공, 복합연계전공, 학생생성전공, 심지어 무전공까지 생겨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 조류와 합치하는 일이다.

그러나 교양과정이면 전공과정이면 학생들의 선택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교과는 필수로 정하여 교육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과학에 관한 교양필수과정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과 사회와 자연현상에 관한,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안목이 없이 대학교육이니 전공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또 전공과정의 경우 모든 교과를 응용·실용적인 것들로 편성할 수는 없는 일이며 전공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핵심기초과목을 최소필수화하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응용이 되었건 실용이 되었건 교과이수를 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용주의적 개발과 편리만을 좇다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난을 자초한 태풍 '루사'가 남긴 교훈을 대학 교육과정 편성에서 되새겨야 할 것이다.

3. 학문 발전, 사회 변화, 학생 필요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교수들의 변화에 의 둔감성이다. 학문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고, 사회는 따라가기 어렵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의식은 거의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이에 교수들이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기존 담당 교과와 교육 내용과 수업 방법을 고정시켜 놓은 체 제도를 바꾸고, 교육과정을 바꾸고,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교육제도 따로, 교육과정 편성 따로, 교육과정 운영 따로다.

교수가 변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편성 운영될 수가 없으며 교육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러므로 교수들이 학문 발전 추세와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들의 필요를 조화롭게 충

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일차적인 책무요, 대학교수의 존재 이유이다.

4. 교과과정과 교과외 과정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대학의 교육과정 문서(책자)에 담겨져 있는 교과목들의 편제 혹은 정규 수업 시간에 교수·학습이 될 것을 전제하는 것을 흔히 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과정의 본령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교과들을 편성한 것일 뿐 이들의 교수·학습으로 대학교육이 끝나는 것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체육대회나 MT, 각종 수련회 활동, 봉사활동, 견학과 시찰, 기타 학생자율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과 성장·발전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 운영이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외 과정에 관심을 지니고 편성되어야 하며, 양자가 통합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양자를 통합시키는 제 1의 원리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교과외 과정을 함께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5. 지속적인 논의와 평가와 개선을 시도하는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은 항상 변해 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긴장되는 논쟁점은 영구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중심인가 아니면 연구중심인가, 현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미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통합적일 것인가 분화시킬 것인가, 문화의 내면화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의 창조를 강조할 것인가, 학생의 선택을 강화할 것인가 제도적인 강제성을 강화할 것인가, 깊이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폭을 강조할 것인가,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 적응과 학문적 성취, 학생 개인의 관심 중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인가, 윤리적으로 사회 참여를 강조할 것인가, 중립성을 강조할 것인가, 기초 교육과정과 응용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 선택과정의 편성 비율 혹은 이수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가상 수업과 강의실 수업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등 많은 논쟁점이 상존한다.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이러한 논쟁점도 여전히 부분적인 것이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지를 때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논쟁점이 상존한다.

이와 같은 논쟁점은 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며, 대학교수들에게는 어떤 연구 주제보다도 우선적인 탐구 과제요, 논쟁의 책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들은 교비의 일정 비율을 교육과정 정책 과제 연구비로의 책정을 공식화해야 하며, 대략 2년 주기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각종 세미나 활동, 교육과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91**

손충기

공주사범대, 서울대, 인하대에서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며,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및 조직개발부장과 학습개발부장을 역임하고, 필리델피아 템플대학에서 '미국 대학 강의평가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원광대 교무처장으로서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의 공동으로 지난 3년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한국 대학교수들의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의 타당성 연구' 외에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다.